

제주4·3 77주년 4·3의 세대 전승 어떻게 (하)

“아동·청소년 위한 맞춤형 콘텐츠 늘려야”

등그렇게 모여 앉아 ‘동백팽이’를 만든 아이들은 이내 여기저기 흩어졌다. ‘들키면 안돼요!’라는 문구가 적힌 동굴 모형 안으로 들어가거나 벽면에 ‘평화블록’을 붙이며 놀았다. 목숨을 건지기 위해 겁먹은 동굴 속으로 숨어들어 평화의 날이 오길 고대했을 70여 년 전 제주는 그렇게 시간을 뛰어넘어 천진한 아이들과 만나고 있었다.

지난달 28일 제주4·3평화공원 내 4·3어린이체험관. 사전 예약해 방문한 어린이집의 원아 10여 명이 이곳에서 4·3을 다룬 샌드니메이션 관람, 만들기 활동 등을 벌였다. 아이들은 체험관을 실내 놀이터 삼아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제주도에서 제주4·3평화교육센터 건물에 조성한 체험관은 6~11세 (유치원~초등학교 4학년 이하)의 유아와 어린이들에게 4·3의 의미를 보다 쉽고 밝게 전달하기 위해 2017년 12월부터 운영됐다. 이용객은 매년 늘고 있는 편이다. 2018년 7830여 명에서 이듬해엔 1만 명을 넘어섰다.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 2월 이후 1년 6개월여 휴관하면서 그 수가 크게 줄었으나 지난해엔 개인 5546명, 단체 3627명 등 9173명이 체험관을 찾았다. 전년 대비 약 55%가 증가한 수치다.

디지털 기법 등을 활용한 어린이 대상 체험 시설이 다양해지고 있는 데 이곳은 개관 이후 전시 콘텐츠



지난달 28일 4·3어린이체험관을 찾은 어린이집 원아들이 ‘동백팽이’를 만들고 있다.

전선희기자

2017년부터 운영 4·3어린이체험관 리모델링 언제쯤
유적지 4·3 공간 등 연령대 맞는 자료 비치·해설 필요
미래 세대 교육 내실로 반복되는 4·3왜곡 행위 방지

가 거의 그대로다. 거기다 토·일요일과 공휴일에는 문을 열지 않는다. 이 때문에 재방문율이나 관람객 확대가 제한적일 수 있다.

제주4·3평화재단 측은 “요즘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실감형 전시를 보강하고 야외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하는 등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다”고 했다. 주말 개방에 대해선 “운영 인력이 2명이어서 휴일 근무가 어려운 형편”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제주도에서는 지난해 12월 착공한 4·3국제평화문화센터에 메타버스관 등 어린이 시설을 배치할 예정으로 체험관은 추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4·3교육과 연계 가능한 공간들은 4·3평화기념관이나 체험관

고도 있다. 제주시 건입동 ‘주정공장수용소 4·3역사관’, 서귀포시 대정읍 ‘제주예비검속 백조일손역사관’, 서귀포시 중문동 중문성당 옆 ‘중문4·3기념관’ 등이 4·3 유적지에 들어섰다. 다만 청소년들이 이들 시설에 발을 디뎠을 때 얼마나 공감하고 몰입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성인만이 아니라 저연령대 방문자를 고려한 안내자료 비치, 해설 등이 동반돼야 해

서다. 제주도교육청에서는 2029년 3월 완공을 목표로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분교(폐교)에 제주4·3학생교육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도교육청의 ‘4·3평화인권교육 5개년 시행계획’ (2025~2029년)을 보면 학생

교육관은 평화인권교육의 내실화와 전국화를 위한 후세 교육의 장으로 지어진다. 개관하면 전국의 청소년은 물론 교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학생교육관과 제주 지역 4·3유적 코스를 매개로 반(半)일이나 1일 또는 1박 2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안을 예시했다.

최근 우원식 국회의장의 웃기엔 단 ‘동백꽃 배지’를 두고 일각에서 ‘공산당 배지’라는 주장이 나왔다. 제주4·3 70주년이 되던 해에 전국화 캠페인으로 정치인에서 유명 연예인까지 동백꽃 배지 달기에 동참했던 때가 7년 전이었다. 당시 제주도에서 붉은색 동백꽃 배지를 제작해 각지에 무료 배포했는데 그때의 관심과 열기가 무색하게 근래 SNS를 타고 ‘가짜 뉴스’가 번졌다. 잊을만하면 등장하는 4·3왜곡을 방지하고 4·3과 같은 비극이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미래 세대가 4·3을 기억해야 한다.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서귀포시 읍면동 ‘더배움학습센터’ 6곳 운영
대정·안덕 등서 25개 강좌… 이달부터 순차 개강

서귀포시는 시민의 근거리 학습권 보장과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신규사업으로 더배움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6개소를 지정, 운영에 들어간다.

시는 6개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에서 25개 강좌·491명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4월부터 순차적으로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더배움 평생학습센터는 대정읍, 남원읍, 성산읍, 안덕면, 표선면, 예래동이다. 내부 공모를 통해 지역별 학습 접근성, 주민 수요, 프로그램 구성 등을 종합

검토 후 선정했다.

더배움 평생학습센터는 주민자치 프로그램과 차별화된 직업능력과 인문교양 중심, 지역 특성을 반영해 총 25개 강좌를 운영한다. ▷대정읍의 황금빛 식문화 학교 등 4개 과정·55명 ▷안덕면의 인문학 강의 등 5개 과정·60명 ▷남원읍의 바리스타 자격취득반 등 3개 과정·36명 ▷표선면의 가드닝 테라피 등 5개 과정·70명 ▷성산읍의 소상공인 홍보광고교실 등 5개 과정·190명 ▷예래동의 제주어 민요 등 3개 과정·80명이다.

문미숙기자

제주 유기동물 줄고 입양·반환율 증가

올해 652마리 보호센터 입소
지난해 동기 대비 31.2% 감소

제주지역에서 주인으로부터 버림을 받거나, 주인이 잃어버린 동물들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개월간 제주동물보호센터에 입소한 유기동물은 652마리로 지난해 같은 기간 948마리에 견줘 31.2% 감소했다. 또 주인을 찾지 못하고 끝내 안락사 한 유기동물은 349마리로, 지난해 같은 기간 568마리와 비교해 42% 줄었다.

반면 입양과 소유주 반환은 증가세를 보였다.

새 주인을 맞은 유기동물은 165마리로, 지난해 132마리보다 25%

증가했고 원래 주인의 품으로 돌아간 동물 또한 47마리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0.5% 증가했다.

동물위생시험소는 동물등록제와 마당개 종성화 사업의 효과로 이같은 성과를 낸 것으로 분석했다. 또 지난해 11월 조성된 입양 전용 공간에서 예비 입양자와 동물 간 교감이 이뤄지는 것도 입양률 증가에 도움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기존에는 유기동물을 입양하려면 반드시 동물보호센터를 두 차례 방문해 현장 입양 교육을 이수해야 했다. 그러나 최근 이같은 절차가 간소화 돼 포인랜드(PAWNHAND)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사전 절차(상담 및 교육 진행)를 거쳐 적합한 입양대상자로 선정되면 한 번의 방문으로 입양할 수 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사관학교 연계 진학설명회
이달 12일 교육청 대회의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사관학교와 연계한 2026학년도 진학설명회를 이달 12일 오후 2시 도교육청 4층 대회의실에서 연다고 1일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오는 6월 중순부터 원서접수가 시작되는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국방간호사관학교 등 사관학교를

초청해 학교별 2026학년도 입학전형 안내와 각 사관학교 담당자와의 1대1 진학 상담을 진행한다.

참가 신청은 사관학교에 관심이 있는 고등학교 1~3학년 학생 또는 보호자라면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이달 9일 오후 6시까지 제주진로진학지원센터 누리집(https://jinhak.jje.go.kr/)에서 접수하면 된다. 각 사관학교별 1대1 진학 상담은 별도 신청 없이 현장에서 진행된다.

박소정기자

高氏宗門會總本部 創立71週年

第21回 耽羅國宗廟大祭典

檀君 三韓 시대로부터 조선태종조까지 수천년의 脈을 이어온 耽羅國 개국시조 高乙那 聖王을 비롯한
역대왕과 星主님들의 위업을 기리는 耽羅國宗廟大祭를 아래와 같이 봉향합니다.
전국 6개 지파에서 헌관으로 참례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일 시 : 2025년 4월 9일(수) 11:00 / 장 소 : 탐라원 종묘 (제주시 연북로 560)

입재 : 2025. 4. 8. 16:00 (정기총회 포함)

지방보조금 지원행사
· 보조사업명 : 탐라국종묘대제
· 보조사업자 : (재)탐라종묘문화재단

재) 탐라종묘문화재단 이사장 高正彦
고 씨 종 문 회 총 본 부 회 장

헌 관	
◎ 왕 위 전	◎ 성 주 전
초 헌 관 高 鼎 柱 (고씨장흥백파대종회 회장)	高 泰 一 (고씨울산종문회 회장)
아 헌 관 高 度 仁 (고씨종문회총본부 부회장)	高 正 煥 (고씨문경종친회 수석부회장)
중 헌 관 高 東 麟 (고씨종문회총본부 부회장)	高 相 淳 (고씨종문회총본부 이사)
전 사 관	高 東 禧 (고씨종문회총본부 상임부회장)